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를 위한 제언

이시우* · 박혜선* · 김형순* · 김경요*

Abstract

The Suggestion of the clinical appl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is

Lee Si-woo · Park Hye-sun · Kim Hyung-soon · Kim Kyung-yo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1. Background

Among the clinical appl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tic methods, a morphologic study of face is recogniz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a legitimate Hanbang diagnostic method. But there are some indirect different view about this method. We should criticize this method for the better.

2. Method

We criticize the current morphologic study of face by its literature basis, its measurement and its result, compared with 「Dongyisoosebowon」 and other related literatures.

3. Conclusions

We suggest that the current morphologic study of face is not proper for the clinical appl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tic method in the point of the lack of literature basis and the intervention of the examiner's subjectivities.

Key words : morphologic study. clinical application. constitutional diagnosis

I. 緒 論

사상의학은 정확한 체질의 진단을 조건으로 삼는다. 잘못된 체질의 진단은 治人之術이 아닌 死人之術이 될 것이다. 이제마(1837-1900)는 그의 저서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서 체질진단의 관건으로 체형기상¹⁾, 용모사기²⁾, 성질재간³⁾, 향심⁴⁾, 완실무

병⁵⁾, 특이병증⁶⁾ 등을 이야기 한 뒤, “인물 형용을 잘 관찰한 뒤 재삼 고찰하되, 의심가는 바가 있다면 병증을 참고하여 체질을 명확히 한 후에 약을 써야 한다.”⁷⁾고 총평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직관적인 관점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서로 다른 사상의들 간에 체질을 달리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체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교신저자: 이시우 주소)광주시 남구 주월동 543-8.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전화)062-670-6528 E-mail)ifree72@orgio.net

질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제마가 직접 『동의수세보원』에 안면부 형태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은 없지만, ‘四象人 상형비결’⁸⁾이나 ‘권영식 망진법’⁹⁾에서 안면부 형태에 관해 언급하였다. 이후 고병희 등¹⁰⁾은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연구”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면계측의 방법을 이용하여 안면부 형태에 대한 수치계측화를 시도하였다. 윤중현 등¹¹⁾¹²⁾의 “한국인 남녀 50-60대의 사상체질별 안면형태에 관한 표준화 연구”와 “한국인 남자 30-40대와 50-60대의 사상체질별 안면형태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은 고병희 등의 연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금년(2001년) 보건복지부는 사상체질검사를 정식 검사항목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안면계측과 체간계측을 공식화하였다.¹³⁾ 그러나 이러한

계측들은 체질진단의 정확성이나 객관성에서 공통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¹⁴⁾¹⁵⁾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안면계측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체질진단 객관화의 대안에 대해 논술힌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안면계측의 문헌적 근거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의 “人物形容仔細商量再三推移如有迷惑則參互病證明見無疑然後可以用藥”을 “인물형용이 체질변증의 우선적 근거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기준으로는 체형기상과 용모사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2. 안면계측 대상자들의 선별방법

1995년 7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경희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사상의학과에 내원한 외래환자 및 직원 300인을 1차분으로 수집하여 이중, 체질경향성이 모호한 자, 형태가 특이하여 전체 통계치에 영향을 줄 만한 경우, 계측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170인을 선정하였고, 체질진단은 사상체질설문지1번 및 QSCC에 의한 사상체질분류진단,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사상체질진단, 약진 및 침진 등 임상적 검증을 거쳐 사상의학 전문의가 판정하였다.

3. 안면계측의 측정방법

측정은 확대한 사진상을 이용한 간접측정을 원칙으로 했다.

4. 안면계측의 결과¹⁶⁾와 기존 사상의서에 기재된 얼굴진단내용의 비교¹⁷⁾

① 얼굴의 길이

기존 : 태음인의 얼굴길이는 비교적 짧다. 소음인
었다.

- 14) 박성식 등 8인. 사상체질 유형과 지문, 손바닥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 ; 10(1) : 81-99
- 15) 김종열 외 2인. 체질판별표를 이용한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 ; 10(1) : 181-213
- 16) 고병희 등.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 ; 8(1) : 101-186
- 17) 김종열 외 2인. 체질판별표를 이용한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 ; 10(1) : 181-213

- 1) 體形氣像 : 몸집과 풍기는 맛 (이창일의 논문 「東武 李濟馬 思想의 基本構造」를 참고로 하였다.)
- 2) 容貌詞氣 : 평소애 가지는 생활태도, 또는 일에 임하는 자세. 이 해석에 대해서는 고찰에서 다루기로 한다.
- 3) 性質才幹 : 성질은 四象人이 본다 소유하고 있는 바탕인性和 情의 合概念을 나타내며, 재간은 情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 4) 恒心 : 일상적으로 갖는 정조나 기본 정도. (이창일의 해석에 따랐다.)
- 5) 完實無病 : 四象人의 생리적 상황으로 表裏氣가 충분히 갖춰진 무병상태의 건강조건이다. (이 해석은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에서 위은 「사상의학」에 따랐다.)
- 6) 이는 건강조건이 아닌 병리적 상황 중에서 특히 保命之主가 부족된 상황에서 체질별로 드러나는 특수한 증상을 말한다.
- 7)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 人物形容仔細商量再三推移如有迷惑則參互病證明見無疑然後可以用藥
- 8) 김주. 성리임상학. 서울 : 대성문화사. 1997:40-44
- 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은. 사상의학. 서울 : 집문당. 1997:133-134
- 10) 고병희 등.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 ; 8(1) : 101-186
- 11) 윤중현 외 4인. 한국인 남·녀 50-60대의 사상체질별 안면형태에 관한 표준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 ; 12(2) : 123-131
- 12) 윤중현 외 8인. 한국인 남자 30-40대와 50-60대의 사상체질별 안면형태에 관한 비교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 ; 12(2) : 143-152
- 13) 2001년 7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한방검사료 중 사상체질검사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안면계측방법에 의한 체형검사와 체간계측방법에 의한 체형검사를 포함하여 4가지 항목이 지정되

이 가장 길며, 소양인은 소음인 다음으로 길다.

계측 : 태음인의 고경, 폭경, 방사경 항목의 측정치가 대체로 최대이다. 고경의 항목 측정치는 대체로 소양인에서 최소이다.

참고 : 얼굴의 길이에 관한 내용은 기존 사상의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두면계측의 결과가 서로 달랐다. 『동의사상진료의전』에서는 태음인의 외형에 대해 ‘似下流’라 했는데, 이는 ‘아래가 넓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턱의 모양

기존 : 태음인의 턱은 넓고 두텁다. 소음인은 가름하고, 소양인은 좁고 얇다.

계측 : 태음인의 하안고의 길이가 최대이며, 면적 또한 최대이다. 소음인은 하안의 길이가 최소이고, 면적도 최소이다. 소양인은 고경의 항목 측정치에서 대체로 최소치를 나타낸다.

③ 입술

기존 : 태음인은 아래 위 모두 두텁다. 소음인은 아랫입술이 윗입술에 비해 두텁고, 소양인은 아래 위 모두 얇다.

계측 : (윗입술 소음인>태음인>소양인 // 아랫입술 소음인>태음인>소양인)

고찰 : 입술의 폭이나 높이에 대해서는 유의성 있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으나, 개별 계측 측정치에서 인용한 것이다.

④ 이마

기존 : 태음인은 평평하다. 소음인은 대체로 가운뎃가 함몰되어 있고, 소양인은 돌출되어 있다.

계측 : 태음인은 좌우로 다소 퍼져 있다. 소음인은 상하로 길게 나타난다.

⑤ 머리형태

기존 : 태음인의 머리형태는 납작하다. 소음인은 납작한 중에 枕骨이 튀어 나와 삼각형으로 보인다. 소양인의 머리는 전후로 돌출되어 있다.

계측 : 태음인은 폭경과 방사경의 비가 최소로서 두안부의 전후 돌출이 최소이다. 소양인은 폭경과 방사경의 비에서 앞뒤로 돌출이 최대이다.(짱구형)

⑥ 입

기존 : 소음인은 큰 입이 많다. 소양인은 입이 작다.

계측 : 소음인의 입면적이 최대이다. 소양인의 입

면적이 가장 최소이며, 가장 많이 돌출되어 있다.

⑦ 눈

기존 : 태음인의 눈은 눈꺼풀이 두툼하고 눈 부위가 평평한 눈이다.(重而平) 소음인의 눈은 크고 단정하나(大而整), 혹은 작은 눈도 있다.

계측 : 태음인의 눈의 면적이 최소이다. 소음인의 눈의 면적이 최대이다.

⑧ 코

기존 : 태음인은 코가 두텁다. 소음인은 코 끝에 앵두를 달아놓은 것 같다. 소양인은 코끝이 예리하고 작은 편이다.

계측 : 태음인의 코의 면적이 최대이다. 소음인의 코의 면적이 최소이다.

Ⅲ. 고찰

체질진단의 객관화는 꼭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많은 四象醫들이 인정하듯 체질진단의 과정은 많은 부분에서 직관적인 방법이 사용되어진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사상의들이 서로 다른 체질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마가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서 “人物形容仔細商量再三推移如有迷惑則參互病證明見無疑然後可以用藥”라고 말한 것은 체질을 관찰하는 순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전 조문들에서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항심, 완실무병, 특이병증을 이미 말한 뒤에 종합해서 결론내린 조문이 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체질진단과정을 생각해보면,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항심, 완실무병, 특이병증 등을 관찰한 뒤 이를 합하여 관찰자의 직관을 이용하여 대상의 체질을 진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한의학의 전통적인 四診法인 望聞問切이 망진에서 진단이 끝나면 나머지 과정은 필요없다는 말은 아닌 것과 같다. 四診法 모두를 거친 뒤 재삼 살펴봐서 辨證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인물형용은 체형기상과 용모사기로 구분된다. 체형은 몸집을 말하며, 기상은 몸집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말한다. 용모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모양’으로 해석되지만,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서 “태음인의 용모사기는 행동거지에 법도가 있으

며, 말투의 수식이 잘 정돈되고, 말에서 우러나는 느낌이 빠르고 크다. 소음인의 용모사기는 몸가짐에 꾸밈이 없고, 말투가 간결하고, 말에 수식이 적다.”¹⁸⁾라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용모는 얼굴의 생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가지는 생활태도, 또는 일에 임하는 자세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주, 권영식 등이 사람의 얼굴모양에 착안하여 사상인 체질진단을 언급하였고, 고병희 등이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에서 안면계측에 대한 수치계측화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안면의 생김새는 인종간의 형질차이에 대해 신체 형질의 관찰, 계측을 통해 인종의 구분자료로 할 때 피부, 모발, 신장, 체격 등과 함께 중요한 것으로 주목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코의 폭과 코의 높이와의 비는 비교적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아 인종의 구분자료로 사용되었으나 추운 지방의 사람이 있어서는 환경에의 적응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¹⁹⁾ 게다가 사람의 두면의 구조는 생후 1년 후부터 활발한 성장을 하며 대략 18세 경까지 계속 성장을 보이며, 이후 하악골, 상악골 등 안면골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²⁰⁾.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인정되는 안면의 길이를 재는 것이 ‘숫자’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오류일 수도 있는 셈이다. 게다가 안면계측에서는 얼굴색이나 각 기관의 배치에서 관찰자가 느낄 수 있는 미세한 느낌들을 체크하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다.

안면계측의 연구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은 사상의학을 전공한 전문의가 판단을 내렸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틀(set)’이 대상에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싶다. “우리가 보는 대상은 대개 지식과 기대, 그리고 이에 관련된 문화적 교육배경과 같은 ‘정신틀(mental set)’에 의존한다.”고 하였는데²¹⁾, 같은 원리가 이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안면계측을 통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내용들이 기존의 사상의서에서 주장했던 내용들과 흡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겠다. 이는 많은 사상의들이 기존의 사상의서들을 참고하고 있는 실정에서 체질을 진단하게 될 때 이들 사상의서의 내용들이 진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안면계측은 직접 측정법이 아닌 ‘확대한 사진상을 이용한 간접측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 확대한 사진상(image)에 검사자가 포인트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따라서 진정 모든 이들이 무리없이 수궁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혹을 충분히 떨쳐줄 실험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신약이 개발되어 임상실험을 할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이중맹검(Double blind test)’이다. 이중맹검법의 의의는 이러한 주관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인 셈이다. 안면계측이 진정 실용적인 체질진단의 방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역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주관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서 “「영추경」 중에 태소음양 오행인론이 있기는 하나 이는 대략 외형만을 말하였을 뿐이고 장부의 이치는 깨닫지 못하였다. 대개 옛날 사람들이 일찌기 태소음양인에 대해서 본바는 있지만 정밀하게 연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靈樞書中, 有太少陰陽五行人論而略得外形, 未得臟理. 蓋太少陰陽人, 早有古昔之見而未盡精究也).”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곧 외형으로만 사람을 나누고자 했던 과거의 방법을 비판함과 동시에 사상을 관찰하는데 내면의 상태(장부의 이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사상의학을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체질진단의 가장 큰 목적은 用藥에 있다.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물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상의는 체질을 진단한다. 만약 체질을 진단하고 약물을 투여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사상의는

18) 이정찬 역주, 신 사상의학론, 도서출판 木과 土, 2001, p636-637

(太陰人容貌詞氣起居有儀而修整正大少陰人容貌詞氣體任自然而簡易小巧)

19) 민병일, 악안면성형외과학, 서울:군자출판사, 1998 p8

20) 위의 책, p17-24

21) 니이질 위버턴 지음, 최희봉 옮김, 철학의 근본문제에 관한 10가지 성찰, 4판, 서울 : 자작나무, 2000:p234

첫째, 체질의 진단이 틀렸을 가능성과 둘째, 병증의 변증이 틀렸을 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둔다. 임규성 등²²⁾은 이러한 사상의들의 임상 패턴을 기반으로 소양인을 태음인으로 오치한 증례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임상에서 이러한 경우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다. ‘처음에는 태음인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다가 소양인으로 바꾸어 진단하여...’라는 대목에서 ‘소양인으로 바꾸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투약한 약물에 대한 환자의 반응 때문이었다. 약물반응에 대해 류주열은 저서 「동의사상의학강좌」에서 약물반응으로 체질을 구별하는 방법을 논하였는데, 그 내용이 이전의 연구에 비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²³⁾ 이 밖에도 이의주 등²⁴⁾의 ‘사상체질분류에 의한 체질식이의 효과 및 활용성에 대한 연구(1)’에서는 태음인군과 비태음인군으로 나누어 태음인식을 시행했을 때 피검자의 반응을 피로도, 불안도, 우울도, 자각적 증상의 변화, 임상병리검사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평가에 사용된 방법들은 약물반응에 대한 평가방식을 설정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의 결과 유의성 있는 변화는 없었다고 하나, 이는 음식반응이므로 이러한 결과로 인해 약물반응을 검증하는데 회의적인 시각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는 체질진단의 객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현행 안면계측방법대로 체질을 자동진단한다면, 이로 인한 부작용은 死人之術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한 체질진단의 객관화를 지향해야 한다.

IV 결론

1. 현행 안면계측의 방법은 시행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체질진단의 객관화 방안으로

22) 임규성 외 2인. 소양인 환자의 태음인 오치 2증례와 양격산화당과 형방도적산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 사상체질학회지. 1999 ; 11(2) : 391-395

23) 류주열. 동의사상의학강좌. 서울 : 대성문화사. 1999:176-203

24) 이의주 외. 사상체질분류에 의한 체질식이의 효과 및 활용성에 대한 연구(1). 사상의학회지. 1998 : 10(2)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2. 「四象人辨證論」에서 언급한 容貌은 사전적 의미인 ‘얼굴모양’이 아니고 ‘생활태도나 자세’로 해석해야 한다.
3. 체질의 진단은 작게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니라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항심, 완실무병, 특이병증 등을 관찰한 뒤 이를 모두 취합하여 관찰한 큰 이미지를 봐야 한다.
4. 약물반응을 통한 체질진단 방법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1. 이창일. 東武 李濟馬 思想의 基本構造.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1996
2. 김주. 성리임상학. 서울 : 대성문화사. 1997:40-44
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음. 사상의학. 서울 : 집문당. 1997:133-134
4. 고병희 등.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체질학회지. 1996 ; 8(1) : 101-186
5. 윤종현 외 4인. 한국인 남·녀 50-60대의 사상체질별 안면형태에 관한 표준화 연구. 사상체질학회지. 2000 ; 12(2) : 123-131
6. 윤종현 외 8인. 한국인 남자 30-40대와 50-60대의 사상체질별 안면형태에 관한 비교 연구. 사상체질학회지. 2000 ; 12(2) : 143-152
7. 박성식 등 8인. 사상체질 유형과 지문, 손바닥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학회지. 1998 ; 10(1) : 81-99
8. 김종열 외 2인. 체질판별표를 이용한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 사상체질학회지. 1998 ; 10(1) : 181-213
9. 이정찬 역주. 신 사상의학론. 서울 : 도서출판 木과土. 2001:636-637
10. 민병일. 약안면성형외과학. 서울: 군자출판사. 1998:p8
11. 니이질 워버턴 지음, 최희봉 옮김. 철학의 근본 문제에 관한 10가지 성찰. 4판. 서울 : 자작나무. 2000:p234
12. 임규성 외 2인. 소양인 환자의 태음인 오치 2증례와 양격산화당과 형방도적산의 차이점에 대한

-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 ; 11(2) : 391-395
13. 류주열. 동의사상의학강좌. 서울 : 대성문화사.
1999:176-203
14. 이의주 외. 사상체질분류에 의한 체질식이의 효과 및 활용성에 대한 연구(I). 사상의학회지.
1998 : 10(2)